

제주도 여성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주부·일반인·여성 발명인 등 총 100여명 참석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와 사례로 강연 열려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16개 시도 순회 여성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가 제주도에 열렸다.

지난달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김광림 특허청장이 직접 참여하여 특강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주중학교 김병오 교사의 '발명 아이디어 개발 및 발명기법' 강연이 진행됐다.

제주도청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여성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는 설명회를 통해 여성들의 잠재된 창의력을 계발하여 지적 소산물에 대한 권리의 확보, 행사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부가가치의 창출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되었다. 여성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는 올 상반기 동안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광주시, 순천시, 서울 등지에서 개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여성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유도와 권리 확보와 행사에 대한 안내 등의 강좌들로 구성됨에 따라 의미가 크다고 보여진다.

지난달 12일 제주도에 열린 이번 설명회는 김광림 특허청장의 참석으로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됐다. 김광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21세기 여성의 역할'에 관한 특강과 함께 아주중학교 김병오 교사의 '발명 아이디어 개발기법 및 생활 속의 발명'에 대한 강연이 각각 진행됐다. 또한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변리사회 김형준 변리사와 한국특허정보원 편찬범 대리의 상담코너(Help Desk)가 함께 운영되었다.

특허강국! 이제는 여성이 앞장서야

이날 설명회에서 김광림 특허청장은 특강을 통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2,700만명의 응원은 '우리민족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세계에 제시한 사례라고 강조한 뒤 지식강국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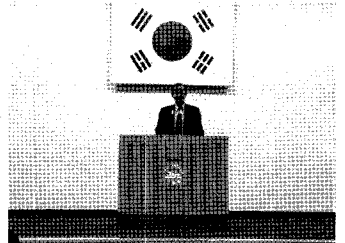
김광림 특허청장은 "이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며,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와 국민들의 높은 정보화 마인드를 밑거름으로 하여 여성들이 앞장서서 지식기반을 구축할 때 진정한 지식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하

였다. "따라서 특허청은 세계적인 정보인프라를 이용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빠르게 특허화시킬 수 있도록 구축된 최첨단 특허넷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식부국 건설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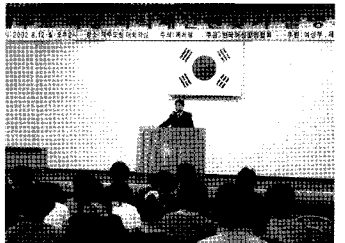
'발명품 없는 발명'에 관심 가져야 할 때!

두 번째 강의에 나선 아주중학교 김병오 교사는 "2차 산업을 통해 만든 좋은 발명품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때는 그 발명품이 가치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3차 산업적 발명(발명품 없는 발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케팅 발명에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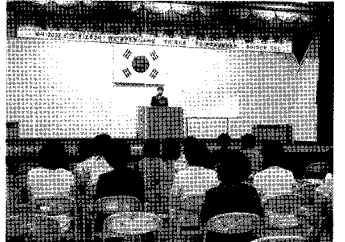
한편 "학교에서 성적이 풀찌인 자녀도 현실에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자신의 일에 대한 프로정신을 갖는 것"이라며, 철가방스타 「번개」는 자신의 일에 프로정신을 가져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가 스타가 되기 이전에는 철가방을 들고 다녔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철가방이 없다. 대신 그가 대학 강단에 섰다. 자신이 그동안 자장면을 배달하면서 터득한 서비스와 배달철학에 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일에 대한 프로정신이 그를 성공의 길로 가게 했다"는 것이 다.



설명회에 함께 참여한 제주도청 김영택 정무 부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광림 특허청장은 '특허강국을 위해서는 여성이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아주중학교 김병오 교사의 강의 속에는 '생활 속 아이디어 발견'에 대한 많은 사례가 제시되었다.



제주도청에 열린 이날의 설명회에는 주부, 여성발명인, 여성기업가 등 1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김병오 교사의 이러한 생활 속의 사례는 청중들이 발명에 대해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한국여성발명협회 황소현 회장은 "설명회가 전국 각지에서 계속됨에 따라 여성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날로 높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일반 여성뿐만 아니라 경제인으로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여성 경영자들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지식기반사회의 구조적 변화 가운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발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참여분야

- 독자투고 : 발명관련 원고(A4 2장 내외)
- 특허 Q & A : 특허 출원에 대한 질문
- 그외 「발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 등

각 분야에 대한 의견과 원고를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1-4 한흥빌딩 302호
Tel.(02)2203-9460 Fax.(02)2203-9461
http://www.inventor.or.kr

한국여성발명협회는 21C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을 이끌어가기 위한 단체로서 창조적인 발명 운동의 선봉자 「발명하는 사람들」을 함께 엮어갈 분들을 모십니다.